

妹染色分體交換 (SEC)의 유발을 담배의 “탈”과 比較檢討하는 것이 있었으며 Benzidin (벤지딘)의 發癌作用에 對한 過程이 檢討되었고 아 니린化合物의 構造와 “놀-하만”에 의한 活用 이 變異原性 誘發과의 關與與否가 研究發表 되었다.

또한 “에임스”試驗에 대치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즉 대장균에서의 DNA 손상時 나타나는 SOS反應을 利用한 簡易試驗인 umu試驗이 그 感受性, 特性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內容이 公開되었다.

8) 新素材

工業의 發達에 따라 新세라믹등 새로운 素材가 日就月將으로 쏟아져 나오고 利用되고 있는데 特히 砒素가리움 (AsGa)의 發癌性 檢討, 酸化니켈 (NiO), 酸化 크롬 (Cr₂O₃)이 評價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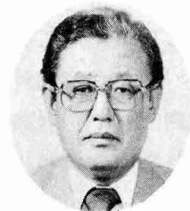
다.

以上 몇가지 事項에 關해서 內容檢討를 하였으나 日本産業衛生學會의 正會員이 2,300餘名이나 되는 큰 會員을 가지고 있으며 演題數도 많은 것을 볼 때 日本의 産業保健의 水準을 짐작할 수 있으며 日本醫學會 中에서도 뒤지지 않는 位置를 占하고 있다고 보며 原著의 깊이도 相當한 水準에 와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産業衛生學會가 1929년에 發足되었으니까 1987年 現在 58년이 되는 셈인데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는 學會의 다음날인 4月11日 부터는 第4回 韓日産業保健 學術集談會가 東京後樂園 會館에서 開催됨으로 우리들 一行은 明日의 對備를 爲해 衛生學會場인 國立教育會館을 떠난 것은 午後1時頃이었다.

第60回 日本産業衛生學會 演題小考

産業醫의 專門性



順天鄉大學
南澤昇

I. 緒 論

1984年度부터 韓國에서 始作한 韓日 産業醫學 symposium은 벌써 4回째를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大韓産業保健協會 會長이신 曹圭常博士와 日本側 ILO 아시아 太平洋 地域 小木博士와 協議하여 進行된 것이 오늘에 와서는 日本側 各醫科大學 教授들과 日本 産業衛生學會, 日本 産業醫 協議會, 各縣에 組織되고 있는 豫防醫學協會, 全國 産業衛生 評議會 등의 많은 呼應을

받으며 日本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韓日 兩側의 會長 各1名씩이고 幹事長 1名씩, 運營委員 10餘名씩으로 組織된 이 會는 每年 韓日間이 交代로 開催하며 그야말로 兩國間의 産業醫學의 새로운 問題點들과 低濃度 公害와 새로운 公害物質들에 대한 環境問題와 人體에 미치는 急慢性 中毒症狀들에 대한 진지한 學術 發表會라고 評價받고 있는 現狀이다.

兩國間의 座長 1名씩과 發表論文도 雙方間 協議下에 새로운 問題點들을 가지고 實施하는 이

會議에 每年 參加하면서 産業醫學에 대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姿勢와 계속되는 高度産業化에 따른 勤勞者들의 健康과 環境問題에 대한 切實한 義務感을 느끼며 60回 日本産業衛生學會와 42回 日本 産業醫協議會에서 論議된 日本 産業醫의 專門性에 對하여 여러분에게 紹介하고자 한다.

이 symposium의 司會를 보신분은 數年前에 GIFU 醫科大學 學長(公衆衛生學 教授)을 지내시고 現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勞動衛生檢査 center 所長이신 館 正和(TACHI MASAKAZU) 博士이며, 討議內容으로는 川崎製鐵所 莊司 榮德(SHOZI EITOKU) 博士의 企業들이 要求하는 産業醫의 專門性, 北里大學 醫學部 公衆衛生學教授이신 高田 勲(TAKADA TASUK) 博士의 “地域에 있어서의 産業醫活動推進方向”, 産業醫科大學 産業生態科學 研究所 環境疫學 大久保 利晃(OKUBO TOSIMITU) 博士의 “産業醫養生機關의 立場에서 본 産業醫의 專門性”, 끝으로 ILO 아시아 太平洋 地域 事務所 小木 和孝(OGI KAZUTAKA) 博士의 “國際的 動向에서 본 職業 保健醫의 專門的 役割”로 2時間餘에 걸쳐 진지한 討論이 있었다.

본인은 이 symposium에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은 産業醫 資格에 대하여 무엇을 論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에서의 産業醫의 資格을 가진 制度下에서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露出되고 있는 것을 우리 나라의 産業保健協會가 앞으로의 産業場들의 環境 問題와 勤勞者들의 健康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 것이며 産業醫學에 關心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 들이면서 勤勞者들의 健康管理을 할 것인가를 生覺하는데 一考가 되기를 바라며 各 討議者들의 內容을 紹介하기로 하였다.

II. 産業醫의 專門性에 대한 司會者의 內容

館 博士는 司會에서 産業醫의 資格이나 必要

條件을 規制하고 있는 나라 또는 규제하지 않는 나라, 또한 産業醫의 專門醫 制度를 취하고 있는 나라와 취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으며 現在 日本 醫科大學들에서는 産業醫에 대한 充分한 教育을 實施하고 있지는 않으나 8萬名의 醫師가 産業醫로 登錄되어 있기 때문에 産業醫로서의 資格을 取得하는 方法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이 있었다. 이와 같은 實情에서 과연 産業醫에게 醫師로서의 能力外에 專門的인 特別한 知識이나 技術이 必要한지 必要하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大企業과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專屬産業醫와 囑託産業醫와의 專門性和 職務에 대한 限界點 또 專門性을 獲得하기 위한 方法等에 대한 問題點들을 重點的으로 論議하기를 希望하였다. 日本에서 産業醫 制度가 실시된지는 15년이 되며 衛生管理者로서의 制度는 벌써 40년이 되었으니 制度로서는 定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活動實情에는 많은 問題點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産業醫의 活性化를 爲한 symposium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III. 企業側이 要求하는 産業醫의 專門性

1. 製鐵會社의 專屬産業醫로서 1965年 前後에 作業者 標準時間의 設定에 參與하여 Industrial Engineer 들과 같이 勞動生理學에 關한 것으로서

- 가. 實作業 時間
- 나. 全體 勞動時間에서의 Loose Time
- 다. 生理的 必要時間
 - 1) 基礎 必要時間
 - 2) 疲勞 回復時間
 - 가) 肉體的 餘裕
 - 나) 精神的 餘裕
 - 다) 環境에 의한 餘裕

等과 같은 것이었는데 勞動 科學 研究所의 큰 도움으로서 무사히 解決한 것을 感謝하였다.

2. 다음으로는 非專屬 産業醫에게 要求되는 것

은 1986年 3月에 實施된 産業醫學振興財團의 調査에서 (이 調査는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한 것으로 처음으로 實施) 現在 産業醫에게 要求되는 것은

- 가) 定期健康診斷의 事後管理
- 나) 健康相談
- 다) 職場巡視
- 라) 定期健康診斷의 實施
- 마) 特殊健康診斷의 事後管理
- 바) 保健指導

等과 같이 臨床的인 面이 주로 되고 있으나 將來 産業醫들에게 要求되는 것은

- 가) Mental health care
- 나) 勞動衛生教育
- 다) 衛生委員會의 參加
- 라) 衛生管理 staff의 教育
- 마) 健康增進 對策에 必要한 助言
- 바) 衛生管理 業務의 分析에 依한 事業主에 勸告

等으로 臨床的인 面도 있으나 管理面에 대한 것이 보다 많다는 점이 特異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3. 最近의 産業醫 課題

가. 一般健康 診斷에서는 高令化에 隨伴하는 疾病管理

나. 特殊 健康 診斷에서는 低濃度 長期 暴露의 影響 把握. 新物質의 毒性

다. 作業 環境 管理面에서의 快適化의 推進

라. 作業 管理面에서는 精神質荷의 評價, 作業 質荷의 適性化

마. 總合管理面에서는

- 1) Total Health
- 2) 衛生管理의 一元化
- 3) Data 處理
- 4) 管理의 system

이와 같은 課題를 消化하기 위하여 産業醫는 成人病學, 中毒學, 勞動生理學, 勞動心理學, sports 醫學 等의 知識이나 技術, 더욱 疫學的 解折, 管理 system의 設計, 計劃策定, 管理推

進, 成果의 把握과 評價等 管理의 知識과 手法를 充分히 研究하면서 産業醫의 專門性의 一面을 넓혀야 된다.

4. 將來의 産業醫의 課題

가. 産業의 國際化로 인한 海外進出, 現地의 衛生水準 防疫 一般健康管理等의 初期的인 面과 金融業의 國際化로 24時間 勤務에 대한 勞動生理의 專門 知識等이 要求됨.

나. 企業의 優位性을 維持하기 위한 業務의 特異化가 進行됨에 따라 新事業 開發에 따른 新物質, 新作業에 대한 中毒學, 衛生學, 勞動生理學, 人間工學等의 새로운 專門知識과 技術이 必要하게 된다.

다. 價格의 切下를 위한 對策이 進行됨에 따라 FA化 OA化는 점점 滲透深化하며 사람과 機械사이의 調和等에 대한 人間工學, 勞動生理學等의 專門性이 要求된다.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면에서 상세한 專門的인 産業醫로서의 資質을 列舉하였으며 끝으로 tema의 調和를 어떻게 할 것이며 産業醫의 育成에 대하여 계속 되는 平生教育의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IV. 地域에 있어서의 産業醫 活動 推進方向

1. 産業醫 活動推進의 現狀

여기에서는 産業醫學講習會가 産業社會의 發展과 함께 地域醫療에 있어서의 産業醫學의 重要性을 提唱하면서 1965년부터 日本 醫師會 主催下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73년부터 日本 醫師會와 日本 産業衛生學會 共同 主催下에 1972年 勞動安全衛生法 制定을 계기로 實施하게 되었으며 都道府縣醫師會內 産業醫研修會等이 1979년부터 産業學振興財團의 事業의 一環으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61회의 研修會를 實施하였으며 産業醫活動의 地域定着 對策에 대한 各級醫師會의 活動狀況, 勞動行政에 있어

서의 産業醫活動 推進對策으로 地域에 있어서의 産業保健 Service의 方法에 대한 研究會, 産業醫學의 vision에 대한 symposium, 産業醫教育 方法의 symposium等 多方面에 대한 問題點과 産業衛生學會로서의 産業醫活動에 대한 對應等 이 진지하게 討議되었다.

2. 地域에 있어서의 産業醫活動의 展望

日本에 있어서 産業醫의 97%는 地域에 있어서 primary care를 擔當하고 있는 臨床醫師에 의한 非專屬囑託産業醫에 의하여 擔當되고 있으며 日本內 99% 이상을 占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産業保健管理에 從事하고 있는 現狀이다.

勤勞者의 健康은 地域의 歷史性和 風土性を 基盤으로한 産業生態系에 있어서의 WORKING LIFE 속에서 把握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地域 産業特性을 反映한 勤勞者의 TOTAL HEALTH의 確保는 地域의 産業醫活動의 機能的, 構造的 産業保健體系의 確立으로서 推進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展望으로서 各種研修會를 통해서 産業醫는 勤勞者의 平生生活構造를 基盤으로한 Health care management가 必要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V. 産業醫 養成機關의 立場으로서의 專門性

專門性的 語義와 産業醫學의 專門性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를 提起하고 判斷, 決定, 連絡, 調整, 實務, 評價의 各段階로 分類한 專門性에 대하여 討議하였다.

同時에 專門的 産業醫의 必要性和 必要數에 대한 具體的인 討議와 産業專門醫의 教育要綱과 問題點들을 說明하고 있다.

“診療所의 先生님”이라는 Image가 아직도 압도적이며 事業主들이 勤勞者의 健康과 高度의 産業社會의 生態에 對한 理解만이 産業醫와 共同運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들을 産業醫로서의 우리들은 더욱 專門知識을 研究하고 産業의 合理化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VI. 國際的 動向에서 본 職業保健醫의 專門的 役割

國際적으로 볼 때 1980年 前後부터 職業保健 Service에 대한 方向이 갑자기 進行하기 始作하였다. 이 背景에는 一連의 나라들의 企業水準의 再編成을 포함한 勞動安全衛生立法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新技術이나 化學物質 規制의 必要가 넓혀진 事實들 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現實을 集約한 것이 1985年의 I.L.O 總會에서 採擇된 職業保健 service 條約(161號條約)과 職業保健 service 勸告(171號勸告)라고 말할 수 있다. 4年前인 1981年 職業安全保健條約(155號)과 同勸告(164號), 1976年 부터의 ILO 國際勞動條件, 作業環境改善計劃(PIACT)도 이와 같은 흐름 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 161號 條約의 機會에 所謂 産業醫가 “職業保健醫”로 轉換되었으나 그 趣旨는 TEAM內의 職業保健醫의 役割과 參加의 意義를 이와 같은 흐름속에서 整理한 點이 있다는 것이 明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動向속에서 職業保健 service의 專門的 基盤이 어떠한 方向으로 갈 것인가를 說明하고 있다.

1. 包括的인 TEAM 속에서

職業保健 service는 넓게는 勞動條件, 作業環境改善을 위한 活動의 一環이다. 따라서 個人集團의 職業生活의 여러가지 면에 대한 改善을 生覺한 包括的인 活動이 必要하게 된다.

이와 같은 包括的인 問題提起가 重要한 것은 最近의 各國의 勞動安全衛生立法이나 ILO 條約, 勸告에 明白하게 提示되고 있다. 特히 161號 條約에서는 職業保健 service 機能에 포함된 11項目이 극히 包括的으로 되고 있으며 그 實施條件으로서 學術性이 強調되고 있다는 點에 注

목하게 된다.

2. 權能附與를 도모하기 위한 Approach

職業保健水準의 向上은 專門家보다 오히려 職業生活當事者들의 主體的인 思考方向이 잘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點에서 使用者, 勞動者의 義務 責任을 明示한 가운데 職場마다 當事者가 自主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 「權能附與 Enabling」 Approach가 가장 중요한 因子로 되면서 이 權能附與의 動向은 1970年代 中半부터 國際的으로 鮮明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專門家에 一任하는 것은 아니고 專門的으로 適切한 支援을 받은 自主努力으로 改善해야 하며 職業保健 TEAM은 管理者, 勞動者의 自主改善, 參加等이 그 主된 任務가 된다.

그러므로 職業保健TEAM 들에 대한 訓練이 重視되고 있으며 國際技術協力도 主로 이 權能附與 參加型의 活動에 力點을 두고 있다.

3. 多樣性이 있는 健康計劃

職業保健의 活動은 個人, 集團의 職業, 生活樣式에 따라 人間接觸을 通하여 具體化된다. 職業生活도 多種多樣하며 人間接觸도 多彩롭다고 할 수 있다. 事實상 그 地域의 歷史, 文化, 各己 職場에 맞는 service 技術이 展開되고 있다. 따라서 職場保健으로서는 一定한 專門技術 LEVEL

의 定型的 應用은 있을수 없고 職場마다의 特性에 맞는 專門性이 要求된다.

또 한가지는 모든 要因을 종합검토하고 그것을 가진 公式으로서 모든 職場保健을 實施하고자 하면 큰 誤差가 發生하며 成果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職場, 地域에 맞는 모든 問題를 公式과 잘 調和시켜 알맞는 職業保健 service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職業保健 service는 점점 學術的인 TEAM 活動의 形式을 갖추게 된다. 中小企業이나 職場單位를 볼 때 이 形式은 더욱 必要하게 될 것이다. 各 職種の 獨自性을 強調하면서 總合的인 TEAM活動 Enabling Approach 多樣性있는 保健計劃等を 가지는 가운데서 專門性의 位置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 專門性의 展開에 따라 職務上의 獨立性은 不可缺하며 法的, 社會的 뒷받침이 急先務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TEAM 活動의 充實化, 訓練, 經驗交流等이 專門性의 基盤強化에 기본이 된다고 하겠다.

以上과 같이 여러 角度에서 産業醫의 專門性에 對한 問題點들을 討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高度産業社會에 對處하기 위한 職業保健 service 問題, 保健管理者들의 再教育과 國際化의 新方向感覺等に 對策이 있어야 하며 勞動行政의 과감한 一大革新만이 우리나라 使用者와 勤勞者의 異和感을 없애고 先進國으로의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

88

88